



차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다양한 차와 다기를 판매하는 도매시장이 각 도시마다 열려있다.

대륙의 茶문화는 생활자체

‘중국차 이야기’ 펴낸 김정연 씨



“우리나라에서는 다예(茶藝)가 번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차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격식보다 차 마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실용적인 차문화가 대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생활과 밀접한 차문화가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중국 절강농대 차학과에서 중국차를 공부한 김정연(49) 씨가 중국차 개론서 <같은 잎 다른 맛 중국차 이야기>를 펴냈다. 십여 년 전 차에 매력을 느껴 공부를 시작한 김 씨는 다도교실 ‘동다정(東茶亭)’을 운영하다 2001년 여름 중국으로 떠나 본격적인 차 공부를 시작했다. 청화대학에서 중국어를, 절강농대와 중국차업 박물관에서 중국차를 공부해 초·중·고급 다에서 자격증과 중국 평차원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나니 무료함과 한적함이 밀려들었어요. 생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오십을 바

중국에서 차 사는 요령

500g이 기본, 가격 천차만별

중국인 차의 본고장인 만큼 차가 흔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집에 상관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사고 싶다면 슈퍼마켓에서 구입해도 된다. 보통 슈퍼마켓 1층에 차 파는 곳이



일본인을 위한 중국차 개론서를 펴낸 김정연 씨. 사진=박재민 기자

라보는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차와 함께 생활하는 중국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2년 동안 중국에서 보고 배운 중국차의 종류와 역사, 10대 명차, 차 우리기와 다기의 선택 등 차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모았다. 녹차와 우롱차, 보이차 등을 우리는 방법과 다기에 대한 꼼꼼한



중국의 차 도매점 모습

있는데, 정찰제로 운영된다. 국화차는 1봉지에 10위엔 정도고 다른 차는 무게를 달아 판다.

차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경하고 싶

설명을 덧붙였고, 찾았, 차 우린 후의 모습, 차 시장 등을 찍은 사진도 풍부하게 실어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마지막 장인 ‘차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에서는 중국에

중국 다에서·평차원 자격증 획득 일상화 된 차문화 엮어 책 펴내 종류·다기 고르는 법 등 정보 가득

서 어떤 차와 다관을 구입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한다.

김 씨는 “중국에서 차를 공부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차를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묻는다”며 “국내에는 중국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게다가 잘못 알려진 것들도 많아 중국차를 충분히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론서를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책에는 차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가려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차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의 품평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한 김 씨는 “우리 차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나무 품종개발과 차 가공법 등 자연과학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심도 깊은 차 전문서적도 펴내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우리 사찰 차 모임

밀각심인당
진각다도회

지역민의 문화·포교 활동의 장



2003년 10월 열린 중조열반절 추념불사에서 진각다도회원들이 육법공양을 하는 모습.

복잡한 도심 속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서울 성동구에 자리 잡은 진각종 밀각심인당(주교 회정) 진각다도회를 찾아보자. 다도회원들이 정성껏 우려 내주는 차를 마시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밀각심인당 진각다도회는 이렇듯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2년 문을 열었다. 매주 월요일마다 다도강의가

터는 생활다례인 규방다례와 말차, 선비차 등의 교육이 이어진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초·중·고급반 수업이 각각 진행된 후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이론교육을 받는다. 차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다서(茶書)를 읽기도 한다. 그 중 ‘소품 만들기’는 진각다도회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다포나 차주머니, 찻잔받침 등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소품들을 회원들이 직접 만들

배례 익힌 후 했다...차·예절 접목 체계적 교육 다포·차주머니 등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자랑

열리는 진각다도회는 교도들과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포교활동의 장이 되기도 한다.

현재 15명의 회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진각다도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차와 예절을 접목한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기초반에 등록하면 절하는 법인 배례(拜禮)부터 배우게 된다. 기본적인 몸가짐을 익힌 후에 행다법을 배우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숙 사범은 “다도는 차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라며 “예절에 맞는 몸가짐을 익히다보면 자연스럽게 차 정신이 스며든다”고 말한다. 중급반부

어보는 것으로, 정서순화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 다실 곳곳에는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소품들이 놓여 있어 한층 분위기가 아늑하다. 다도회 박영숙 회장의 며느리이기도 한 유영경 사범은 “교우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품을 만들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걱정을 잊게 된다”고 말한다.

중조탄생절과 열반절 등 일 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육법공양을 펼치고 있는 진각다도회는 오늘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차인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02)292-3252

인터뷰

박영숙 회장

“심신 다듬기엔 茶가 최고죠”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려내고 지키는데 차만큼 좋은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차와 예절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배우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이사를 지내기도 한 박영숙 회장은 “요즘 가족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다도를 배우으로써 예절

도 함께 몸매 익힐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차회를 운영하며 차문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 회장은 “진각다도회 회원들은 차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어가는 차인다운 차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2000만 불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 범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 퍼지므로 장엄한 범문을 불자들에게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독경 및 범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음향종 및 실체 종을 결합한 최 첨단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왕복 송출이 가능하며, 마이크 및 스피커(3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당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식 - 45번(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적), 오디오버튼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메시지 기록 기능(단종 필수 조절) - 알람기능 (3번 작동) 기능, 예 :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옆부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상경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버너버기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룬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묘음 법륜장 개금
₩ 1,080,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종
₩ 660,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 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예밀레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하고 동시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전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 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입은 원어는 음성을 깨워 입할 수가 없습니다.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주문전화
[마이콜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